



다중 채무의 문제 배후의 도박 중독

2017年 10月 12日

의존증 문제 대책 전국 회의 사무 국장

변호사 요시다테즈야도(吉田哲也)

대중 채무의 해결과 도박중독

변호사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다중 채무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지 고민할 때, 눈앞의 다중 채무 상태를 해결함과 동시에 다중 채무 상태의 원인을 반드시 제거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만약 사건 처리 후의 사람을 내버려 둔다면, 단지 채무 문제를 정돈했을 뿐, 위탁자는 반드시 또 다중 채무자의 문제로 구조를 요청하게 된다.

다중 채무로 이끄는 원인은 굉장히 많지만, 그중 가장 해결이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는 도박 중독이다. 파칭코 중독 또한 일본의 특수한 환경의 산물이며, 파칭코 중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가 다중 채무자를 도울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기초 예방전이다.

도박 중독자 중, 흔히 말하기를 파칭코는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하지만, 파칭코 도박장은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의 생활 범위 안에 융합 되어져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일본이 「도박대국」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일본의 파칭코 업소의 수는 1만 0986개 (2016년 12월 경찰청 발표), 파칭코 기계의 숫자는 457만 5545대 (2016년 「세계 게임 머신의 수 (The World Count of Gaming Machines) 2016」 전 세계 도박 기계의 숫자는 모두 787만 0643대, 그중 대략 58%가 일본에 있다), 파칭코 업소의 수익 (구슬비용) 은 21조 6260억 엔 (2016년, 「휴간지피서 (休閒白皮書)2017」), 파칭코 참여자의 수는 940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위와 동일). 때문에 결국 일본은 검사를 거치지 않고 입장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누구나 업소에 출입이 가능하게 되었고, 대중 매체를 힘입어 파칭코의 광고가 출현하게 됨으로 세인들에게 익숙한 영웅, 우상들이 파칭코 기계에 등장,



과칭코에 더 깊이 빠지는 상태가 되었다. 만약 세계의 다른 나라들이 이런 종류의 영업소가 중독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더라도 단속을 가중시키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당연히 일찍부터 입장 제한, 광고 제한 등등의 정책들로 막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일본은 대책이 없이 모든 업소가 과칭코 손님들을 이런 위험한 상태 아래 노출 시키고 있으므로, 우리는 반드시 도박 중독 상태가 된다는 사실의 결과를 받아 들여야 만 한다.

도박 중독의 발견

도박에 빠져서 중독 되었을 때, 아무리 멈추려고 해도 이미 아무 방법이 없으며, 이것은 일종의 병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과칭코 중독자는 대략 200 만명 (아하키기호세 (帯木蓬生)저, 「ギャンブル依存とたたかう (도박중독 저항)」 신조선수 (新潮選書)), 이미 중독된 사람은 과칭코 참가자 인구의 6분의 1 이며 게다가 도박병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숫자는 200 만 명, 어떤 이는 500 만 명 이라고도 하니, 일본은 그야말로 「도박 대국」 이라 할 수 있다.

도박 중독의 두가지 특징은 「거짓말」 과 「채무」 이다. 만약 눈 앞에 이미 진 빚이 있고 계속해서 다중적인 채무를 유지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도박 중독의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도박 중독은 일종의 「부정하는 질병」 이기에, 극소수의 사람들 만이 자기를 그런 케이스라고 인정 할 뿐 이다. 따라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도박 중독 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며, 또한 도박이 채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도박 행위를 부정하기 까지 한다 (거짓말) .

위에서 말한 바 와 같이, 다중 채무의 배후에는 도박 중독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매우 어려운 것 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만, 그러나 소비자업자의 신청서 교역내역을 자세히 검사 해 본다면, 도박자 특유의 대출 방식을 발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같은 날 같은 시간 대에 동일업자가 반복적으로 대출을 하는 상황이



그것이다. 파칭코에 몰입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이 가진 돈을 다 잃어버리고, 그 후에 가장 가까운 소비자 금융 ATM 에서 만 엔을 인출한 뒤 다시 같은 방법으로 만 엔 을 잃은 뒤, 다시 만 엔을 인출한다. 이런 행위가 바로 중독자 특유의 사고 방식으로, 「잃은 돈을 도박을 통해 찾으려는」 순환 행동으로 표출 된다.

파칭코 중독과 행동 제어

눈 앞의 많은 다중 채무자가 파칭코 중독을 인해 시작 되었다고 의심 된다면, 반드시 행동 제어를 위해 주의 해야 한다. 행동 제어라는 것은, 중독자 주위의 나쁜 사람들, 환자를 위해 중독 행위를 유발 시키는 요인을 극소화 하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이 도와 주려는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일 이지만 결코 비판 해서는 안된다. 물론 현실 측면으로 보면, 계속적으로 행위를 자극하는 일이 발생하고, 중독 환자는 그 작은 문제를 빌미 삼아 지속적으로 중독 행위의 공간을 획득하여, 다시 도박하게 된다. 말하자면, 문제 발생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위가 환자에게 있어 중독의 효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다.

다중 채무자 간의 관계중 제일 쉽게 발생하는 조작 행위는 바로 채무를 대신 저주는 것이다. 도박 중독자들은 때때로, 여러차례 가족들에게 채무의 짐을 대신 지게 한다. 매 번 가족 회의 때마다, 본인은 「절대 도박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또 다시 도박에 빠져들게 된다. 본인 당사자는 도박에 깊이 빠져, 도박 중독 상태로 변하여, 방대한 채무 때문에 사고하지 못하고, 일시적인 속수 무책 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가족들은 채무를 정돈하고 당사자 대신 빚을 갚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가? 따라서 당사자는 채무가 없고 가족 모두가 모든 빚을 갚는다면, 이로 인해 다시 빚을 지는 대출의 우수 고객 으로 변화되며 ; 이렇게 당사자는 다시 도박 준비를 잘 함으로 인해 빚지기 좋은 환경이 될 뿐이다.

도박 중독으로 부터 회복의 과정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도박 중독에는 특별한 약이 없으며, 확실한 치료법 또한 없다.



도박 중독자를 돕는 의사는, 매일 환자와 가족들을 대면하여 각종 방법을 동원해 문제를 극복하게 한다.

비록 도박 중독자를 완치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는 「불가능 (매우 어렵다) 다시 회복 되는 것이 힘들지만, 도박꾼이 취미 범주 안에 들어가 즐기게 된다」. 이럼에 따라 도박꾼이 「도박을 하지 않고 지내는 매일이 오기를 희망하며, 또한 그러한 매일이 계속 되기를, 그리고 죽을 때 까지 지속 되길 바란다」. 이것이 바로 「복원」이다. 도박꾼은 완치가 되지 않더라도 회복은 가능하다.

우리가 마땅히 설정한 목표, 그것은 「도박 중독의 치료가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을 핵심으로 사고하여, 당사자를 회복, 치료의 길까지 이끌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도박 금지 협회 (익명의 도박꾼 Gamblers Anonymous) 이런 단체를 취득하는 것, 또는 도박 중독자의 의료기구 등의 협조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렇다 할 지라도, 도박 중독자는 자기 자신의 병상태의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들 대부분은 정보 협조만을 받아들이고, 한 발 더 나아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때문에 중요한 관건은 여전히 당사자 주변의 가족들이 되는 것이다. 도박꾼 본인은 당연히 좋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되고, 그 가족들은 당사자의 마음을 돕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더욱 잔혹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들의 가족은 더욱 더 심신 건강을 되찾으려 노력 해야 하고, 변화와 당사자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도박꾼으로 하여금 도박꾼의 회복 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이런 개념 또한 점점 보편화 되기 시작했다. 다중 채무자를 돕는 사람의 하나로서, 마땅히 이런 개념을 기억하고 도박꾼의 생활 재건을 다시 토론해야 한다.

소비자 입장을 고려한 도박꾼 안전 법률 규범

도박꾼의 재건 경제 방법은 위에 말한 바 같이, 사회제도를 측면 관찰,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는 경제가 어려운 도박꾼을 만들지 않는 구조이다.



현대 도박 산업 본질은, 고도로 발전한 기술을 이용하여, 도박자로 하여금 도박을 멀리 하지 못하게 하고, 다시 그들의 금전을 또 다시 약탈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도박에 대응하는 각종 규범을 수립하였고, 왕년에 일본 역시 도박을 금지 하였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도박 관리 제도가 가장 느슨한 시대이며, 파칭코라는 한 사례 만으로도 알 수 있듯, 일본의 도박은 도박꾼들에게 있어 지극히 위험한 하나의 서비스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반드시 도박꾼이 소비자라는 시선으로 보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도박 산업의 모든 매출 상품 업자의 신분으로, 그것은 1 퍼센트를 넘는 고객을 병에 걸리게 하는 위험함 상품이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 할 때, 매우 명확히 볼 수 있듯이 도박꾼에게 생겨나는 모든 문제는 단순히 그들 자신만의 책임이 아니며, 업자와 이런 종류의 산업 상태의 사회가 그 책임을 져야만 한다.

이런 산업 약탈이 소비자의 도박꾼이 되므로 우리는 이런 종류의 상업적 존재를 허락해서는 안된다. 도박 산업의 존재를 받아 들이느냐 아니냐는 각각의 의견이 다르겠지만, 그러나 도박이 산업 상태의 질병이 된다면 마땅히 법률적 진행을 통해 엄격히 규범 되어야 만 한다.

이상